

문화방송노보

발행인 오동운
편집인 이승준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2020년 9월 2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노조 탄압 · 파괴 주범 다시 단죄받다! 김재철-안광한-김장겸 2심도 “유죄”



김재철-안광한-김장겸에게 또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노동조합 탄압의 주범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재판부는 달랐어도 그 판단은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안광한·백종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김장겸·권재홍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닷새 뒤 김재철의 항소심에서도 노조 탄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역시 1심과 같았다. 이들은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인사평가를 악용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 “정권의 희생양이다”라는 변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배지, 보복인사.. 노조탄압 ‘대물림’

노조 탄압의 선봉은 김재철이었다. 공정방송을 외친 ‘170일 파업’ 이후, 김재철은 조합원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다. 고(故) 이용마 기사를 비롯해 9명을 부당해고하고, 80여 명을 부당징계했다. 70여 명을 부당전보시키고 최하위 근무평정을 내렸다. 여기엔 ‘신천교육대’라는 유배지가 활용됐다. 조합원들에게 ‘브런치 만들기’ 등 업무와 무관한 재교육을 받게 했다. 바른말 하는 조합원들을 고립시키고 모욕을 줘, 노조 탈퇴를 유도한 것이다.

후임 경영진도 김재철의 전철을 밟았다. 안광한은 2014년 취임 후 각종 ‘센터’를 급조해 공정방송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조합원들을 ‘유배’했다. 취재·제작 현장이 있어야 할 조합원들은 스케이트장 운영, 주차장 임대사업 등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투입됐다. 유배지였던 신천교육대를 본 뜬 것이다. ‘친노조 성향’이라는 낙인이 찍힌 조합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인사폭거가 자행됐다.

“언론사는 감시견.. 부당노동행위 안돼”

재판부는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자와 PD에게 ‘업무경력 단절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공적책임을 가진 방송사에서의 노조 탄압은,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심각한 범죄란 뜻이다.

김재철에 대해서도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징벌적 조치를 남발해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정당한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의도와 맥락 놓친 일부 판결은 아쉬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에 아쉬움은 남는다. 안광한, 김장겸의 보직자 노조탈퇴 중용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보직자가 사용자에게 가깝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보직’의 사전적 의미에 치우친 나머지, 노조와 해 공작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직자가 사측이나 노측이나를 따지 기보다 당시 사측이 왜 노조원 보직자를 막으려 했는지, 보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어떤 목적이 깔려있었는지가 천착했던 1심 판결에 비하면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김재철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했다는 혐의도 또다시 무죄로 판결났다. 방송 장악이 국정원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정원장에게는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김재철도 방송 장악 혐의에 대해서는 덩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부터 없는 권한을 휘두른 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형식 논리에 빠져 머뭇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지는 8년은 노조탄압의 역사였다. 이들은 정권의 부역자가 되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를 탄압하는데 몰두했다. 그렇게 방송독립과 공정방송은 점차 훼손됐다. 이들의 악행과 과오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김재철, 제2의 김장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야 언론노동자가 자유롭게, 시청자와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 비록 사법부의 일부 무죄 판결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이상 공영방송 MBC에서 부당한 노조 탄압과 공정방송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은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전태일 3법
우리가 모두
직접 발의합시다

● 전태일 3법이란?

전태일법 1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사업체의 60%는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전태일법 2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는 노조할 권리 배제

전태일법 3 종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매년 2,40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도 벌금 뿐

● 전태일 3법 발의 방법?

1)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청원
<https://vo.la/s56yR> 접속 ▶ 동의하기 버튼 누르기

2) 종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https://vo.la/zP9kc> 접속 ▶ 동의하기 버튼 누르기

벌써 1년, 故 이용마 조합원 1주기를 추모하다

지난 8월 21일은故 이용마 조합원의 1주기였다. 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몇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먼저 8월 18일부터 나흘간 방송센터 1층 로비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이용마 조합원과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을 회고하고,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고인의 유지를 기리는 조합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 있는 엽서에 글을 적어 고인에게 못다 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도 방문하여 기자 이용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은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하여 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도 고인에게 못다 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주기를 맞아 이용마 조합원의 두 아들을 지난 1년간 후원해 준 '현재·경제 후원 모임' 180여 명의 정기후원자와 일시 후원자에게 감사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했다.

조합 집행부는 1주기였던 지난 21일, 이용마 조합원이 영면에 있는 안식처를 찾았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아직 못 다한 이야기

-故 이용마 조합원 1주기

보고 싶은 용마 선배.

여긴 한동안 비가 많이 오다 지금은 해가 쨍합니다.
마치 선배 떠나던 그 날처럼 참 무덥네요.
지금 여기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세상도 회사도 말입니다.
선배가 계시면 엄청 잔소리 많이 하셨을 텐데,
선배 잔소리도 그런데요. 보고 싶습니다.

참기자 MBC 이용마 기자!
하늘에서 평히 쉬길...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이 버겁네요.
그래도 선배님 말씀 붙들고
더 노력할게요.

선배,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바뀐 언론 환경.
긴 투쟁 끝 여전히 남아있는 추유증으로
많이 피곤하고, 이야기도 전처럼 많이 안 나누지만,
선배의 말씀 다시 되새기며 할발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배를 늘 기억할게요.

이용마 기자님,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빠르네요.
생전에 저에게 좋은 영향을 전해주셨던 기억.
오래 간직할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거기 어때? 아침마다 보도국 입구에서
너를 보며 인사한다.
"안녕! 용마 오늘도 힘내자고."
우리의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보고 싶네요. 대웅사에서 아이처럼
종을 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레 겁먹고 자기 검열하던 저에게
관찰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죠.
평히 쉬세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 살은 바꿀 수 있다 하셨지만 어떻게 바뀌었
MBC의 현실을 보면 그 변화조차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된 거지하고
적당히 눈감고 타협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나도 내 것만 쟁기며 살아가야 하는 건지,
선배의 지혜와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안 계신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벌써 1년...
살아남은 자의 도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늘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친구. 고마워.

선배가 지켜낸 MBC.
우리가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배가 그립니다.

선배,
팽팽 내리되는 햇볕 아래 선배를 울며 보내드렸는데
어느새 1년이 됐네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회사에 들어올 때마다 보도국 입구에서 선배의 모습과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선배의 말을 보며, 항상 기자로서의 제 모습을
또 한번 다잡게 됩니다.
그립니다. 그곳에서 평히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죠?
여기는 남은 사람들에게
믿고 맡기고, 평안하시길...
오랜만에 다시 봐서 반가웠어요.
그 미소, 그 목소리... 안녕.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많지만
선배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떠올리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히 지내십시오!

엊그제 용마 형이 꿈에 나왔더니,
이제 곧 1년이 되었군요.
떠올리면 마음 아프면서도,
형과 함께한 기억이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게 했어요.
분당에 가서 형하고
얘기 좀 나눠야겠네요.

선배님!
아직도 밝은 따뜻한 세상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 발걸음 함께 걸어주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마씨!
벌써 1년이 됐네요
용마씨가 꿈꾸던 일들,
지금 우리가 잘 해내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늘 용마씨를 생각하며 더욱 노력해 나갈게요.
평히 쉬세요.

개어 있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착한 이들을 더 이상 아프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용마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립니다.

지난 2012년 파업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뛰어노는 쌍둥이들을 지긋한 미소로 바라보시던
선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벌써 1년... 시간 참 빠르네요.
선배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더욱 선배가 그리워지네요.
힘들수록 보고 싶은 선배... 평안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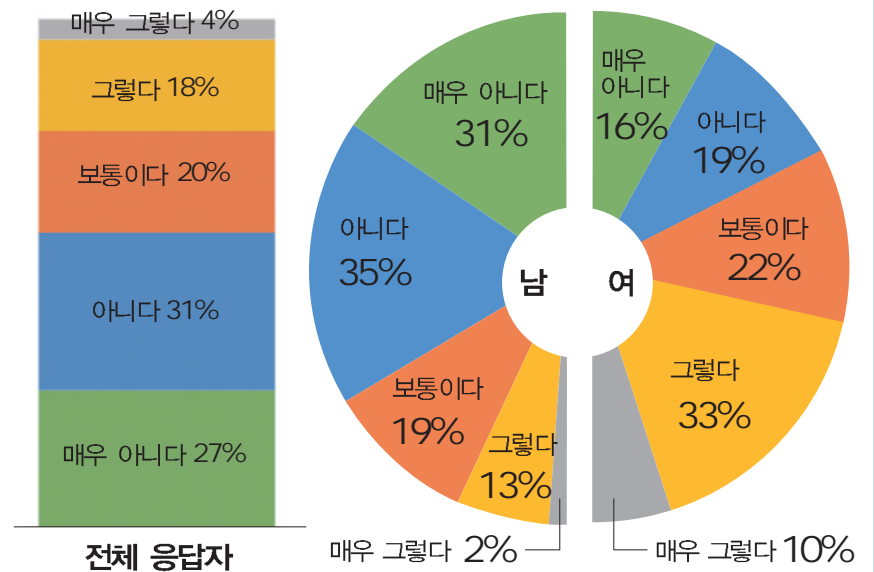
〈사내 성평등 의식 설문조사〉 결과

성평등 의식, 더 개선되어야 한다!

회사는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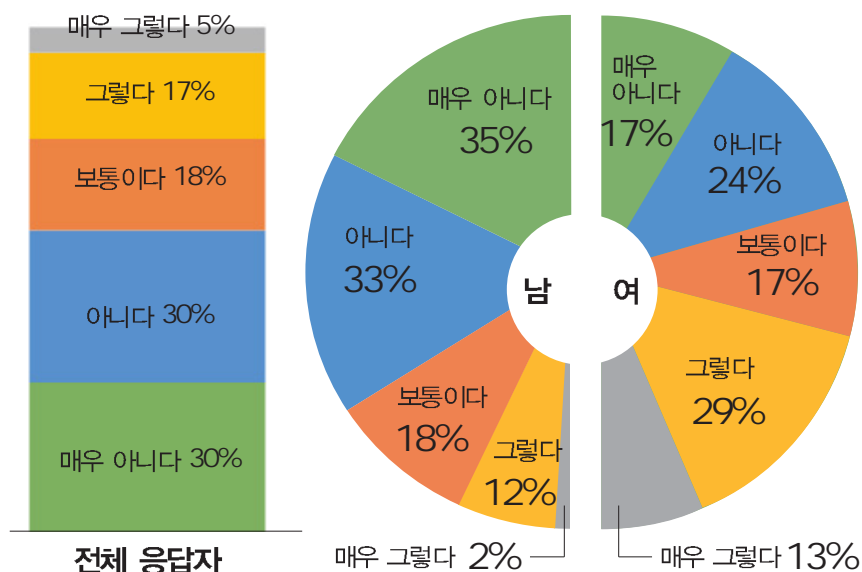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회사와 함께 사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성평등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성이 573명, 여성이 211명 등 총 784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MBC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은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회사 안에서 ‘살 빠졌네’, ‘살 좀 찼지?’, ‘오늘 예쁘네’,
‘화장을 좀 하고 다녀라’, ‘오늘 옷차림이 ○○하다’ 등
외모품평을 했거나 받아 본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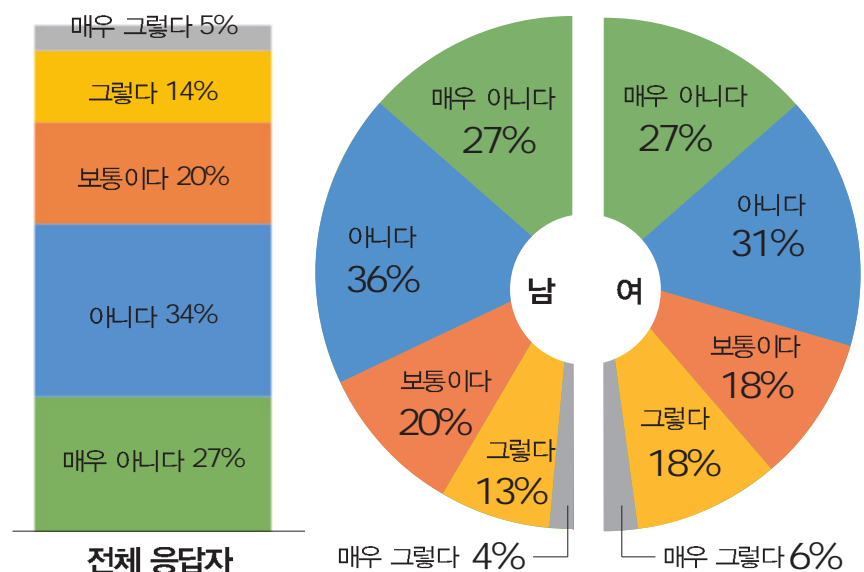
응답자 중 22%가 ‘그렇다(18%)’, ‘매우 그렇다(4%)’로 답변하여 5명
중 1명 이상 꼴로 외모품평을 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특히 30대의 34%가 외모품평에 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다. 이 항목은 이번 조사 내용 중 여성과 남성의 답변차이가 컸는데
남성은 15%, 여성은 43%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답변했다.
특히 30,40대 여성이 각각 48%, 62%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회사 안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빨리 결혼해’ 처
럼 결혼, 연애 등 사생활에 대해 질문 또는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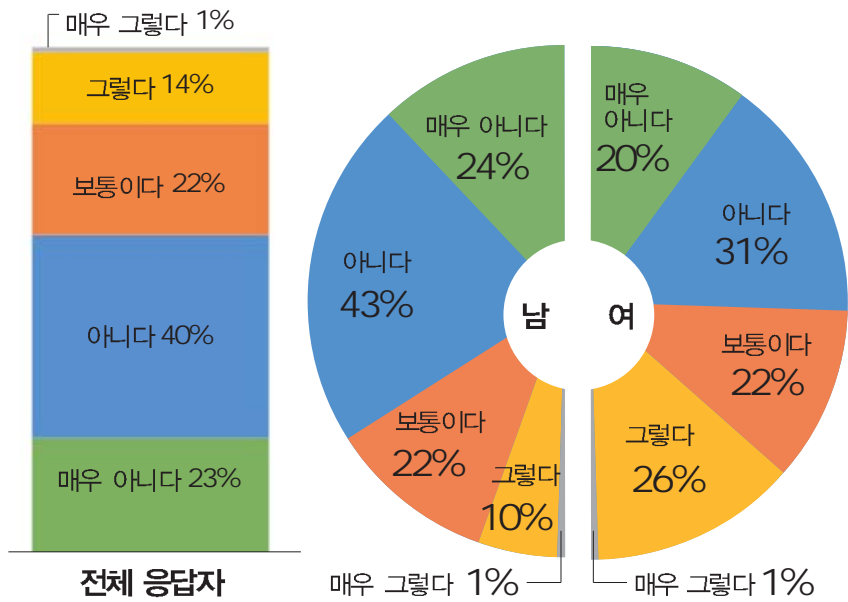
응답자 중 22%가 ‘그렇다(17%)’, ‘매우 그렇다(5%)’로 답하였고, 특
히 30대의 3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
율로 사생활 관련한 불필요한 질문,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
다. 성별로는 남성은 14%, 여성은 42%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여 성별에 따른 답변에 많은 차이를 드러낸 항목이었다. 특히
30대 여성 49%, 40대 여성 53%가 조사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과 간섭의 피해를 받았다고 했다.

3. 내키지 않아도 회식이나 술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
을 느껴 본 적이 있거나, 술자리에서 ‘왜 술을 안마시냐?’
는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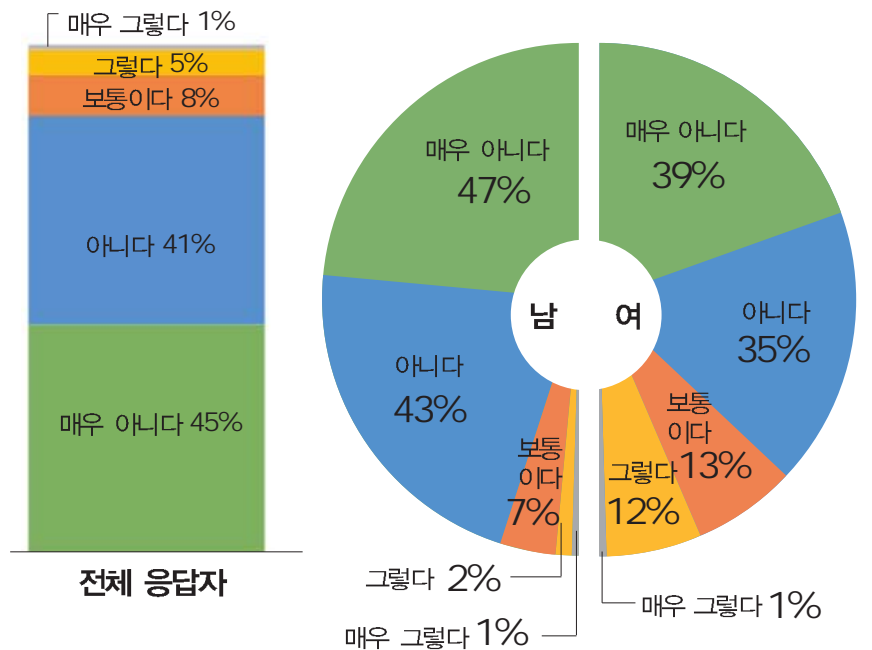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로 거론되는 술자리 문화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었
다. 전체 응답자 중 19%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했으며, 연
령별로는 사원 직급자가 많은 30대의 2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회식 및 음주에 대한 압박 혹은 강요의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성
별로는 남성이 17%, 여성이 24%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
다. 특히 여성 응답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여성보다 3~50대
여성이 각각 30%, 31%, 3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했다.

4. 회사 안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느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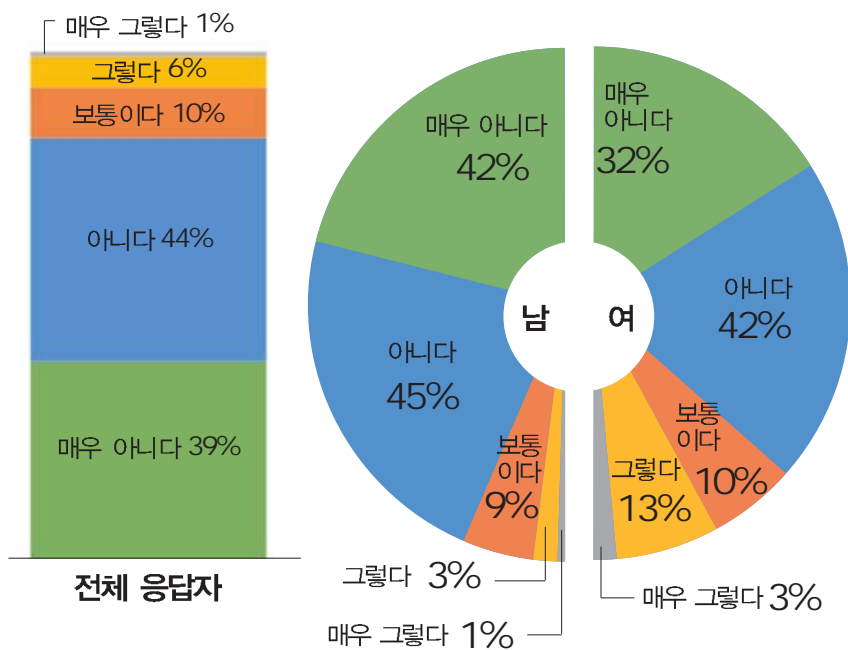
이 질문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MBC 내에서 성희롱 신고와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사 항목이었다. 아직도 전체 응답자 중 1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11%, 여성은 2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30%, 40대 여성의 34%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였으며, 특히 50대 여성 5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과거부터 MBC의 조직문화 내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5. 상대방으로부터의 스킨십 거절의 의사표시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며,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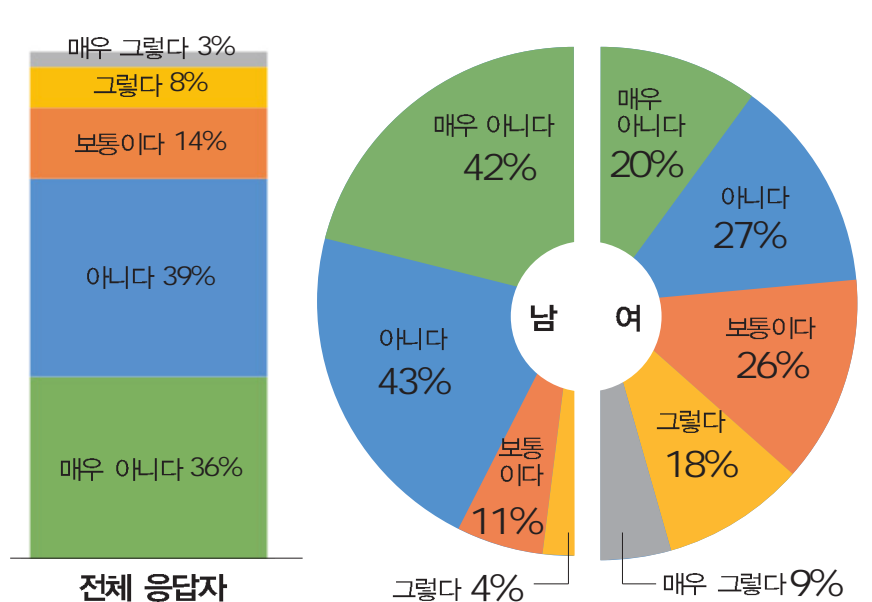
스킨십 거절 의사표시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만이 '그렇다(5%)'와 '매우 그렇다(1%)'로 대답하였다. 남성은 3%, 여성은 13%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였으며, 특히 40대 여성 23%, 50대 여성 24%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MBC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스킨십도 성희롱, 성추행이 될 수 있음을 더욱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6. '이것도 미투야?', '너만 힘들어져'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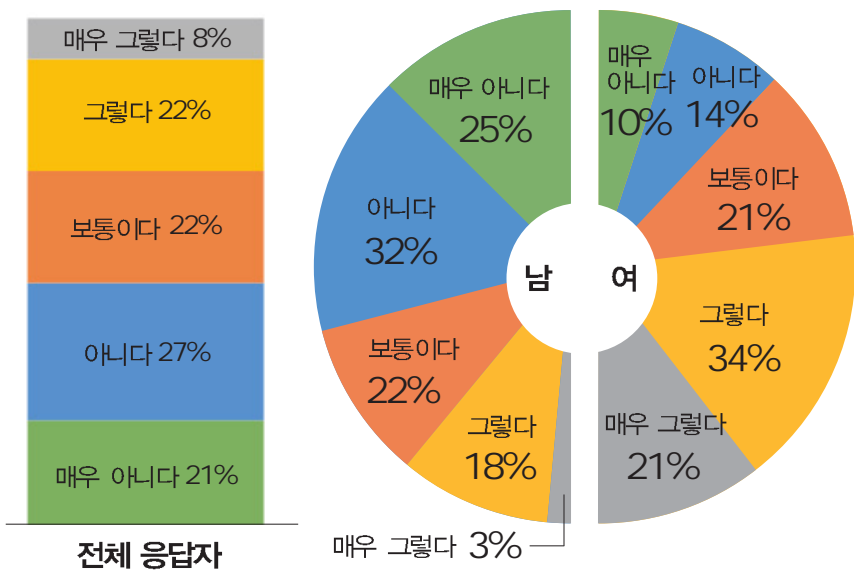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피해 당사자 및 목격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다. 이번 MBC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가 '그렇다(6%)', '매우 그렇다(1%)'로 답변했다. 하지만 여성 응답자의 16%, 특히 40대 여성의 24%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한 것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탕비실 정리, 커피 준비 등을 남성이 하면 '이런 것까지 챙길 줄 안다'며 섬세하다고 평가하지만, 여성이 하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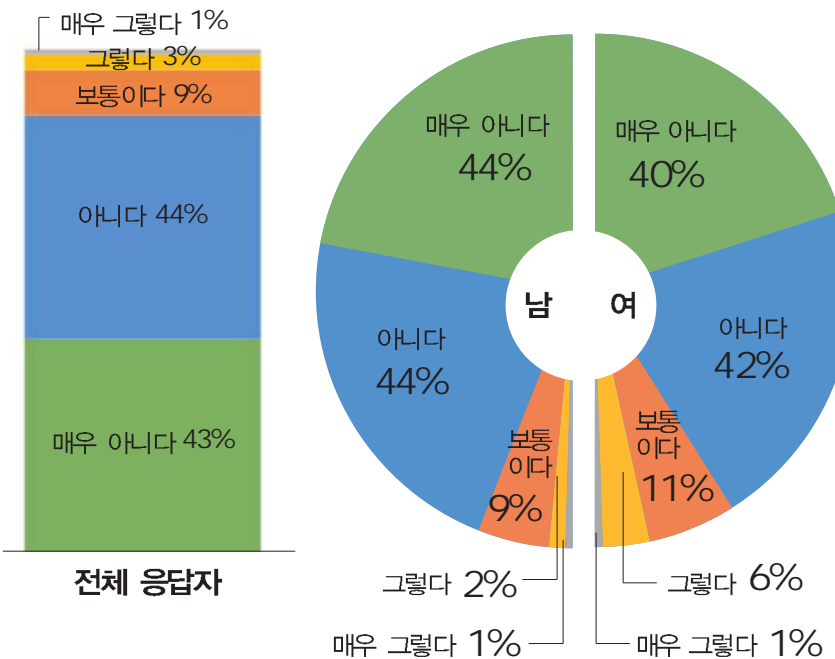
이 문항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자리잡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응답자 중 11%가 '그렇다(8%)', '매우 그렇다(3%)'로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17%, 30대의 13%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답변했다. 조직 내에 허드렛일을 처리하는 연령대가 20~30대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4%, 여성이 2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였다. 성별에 따른 역할 인식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우리 회사에서 보조적인 업무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뽑을 때 선호하는 성별은 여성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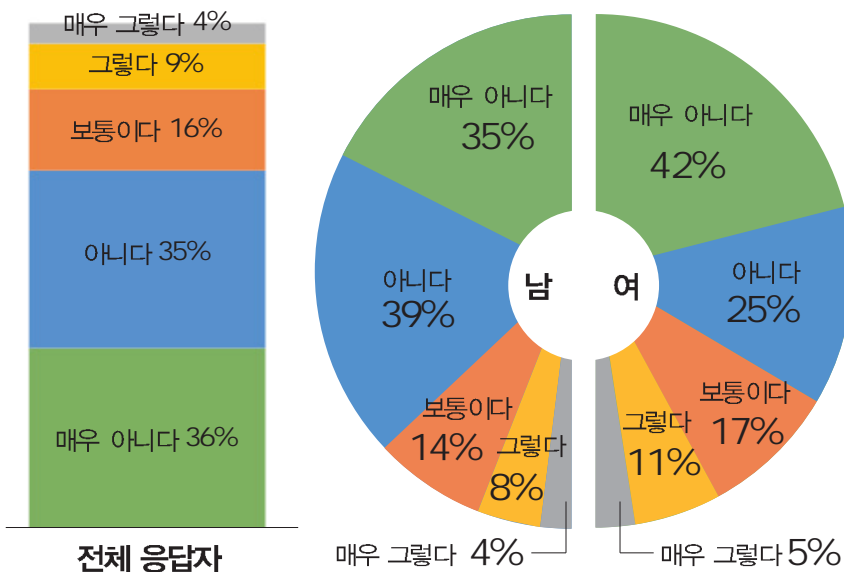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 항목 중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답변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 중 30%가 보조적인 업무 채용에 있어 회사가 여성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21%, 여성의 55%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대답하여 여성 구성원들이 더 문제의식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보다 균형 잡힌 채용을 위해 눈여겨 봐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9. 상사가 사적인 심부름이나 개인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항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으로, 4%라는 가장 낮은 비율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나온 문항이다. 회사 내에서 상사가 사적인 심부름이나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20대 남성의 8%, 여성의 9%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였다.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유념해야 할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 상사가 큰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한 적이 있다.



이 문항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13%가 직장 내 상사가 큰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18%, 40대가 15%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2%, 여성은 16%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언어폭력의 형태로 발생하는 만큼, 근절을 위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고,
 상대방이 그것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부적절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역시
 성희롱으로 간주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의사표현도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번 결과를 통해 사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차별/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제도 보완에 대해
 사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합원이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도움이 필요하세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talk@mbc.co.kr 또는
 talkmbc@gmail.com**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 · 프로그램

민실위가 2020년 2분기 좋은 보도 ·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서울과 지역지부에서 각각 2편씩 총 4편이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제작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조합원들의 노고가 깃든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됐습니다.
 민실위는 올해에도 매 분기마다 MBC 노동조합의 가치를 구현한 '좋은 보도 · 프로그램' 시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보도상

서울 '바다에 버려진 인권' 시리즈



▷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자행되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실태를 생생한 영상과 증언을 통해 고발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원 인권문제를 조명했고, 외신들도 MBC의 보도를 인용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은상 조합원_ 서울/보도

수상소감 인권유린 체포 영상과 선원들의 계약서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급히 통역을 구하고 관련 기관을 꼼꼼히 취재했습니다. 반향은 뜨거웠습니다. CNN, BBC, AP 등 주요 외신들이 MBC뉴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리 배 위에서 이뤄지는 인권 탄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부족해 보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길 것입니다.

대구 보도특집 2부작 'KAL858기 실종사건'



▷ 'KAL858기 실종사건'의 추정 동체를 미얀마 해저에서 최초로 발견 · 공개하고 치열한 추가 취재를 통해 정부의 현지 조사를 이끌어냈다. 33년 동안 단 한구의 유해도 발견되지 않은 KAL기 실종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실마리를 마련했다.

심병철 조합원_ 대구/보도
 마승락 조합원_ 대구/영상취재

수상소감 858기 실종사건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체를 인양하면 진실은 떠오를 것입니다. 폭파범이라는 김현희의 주장대로 비행기의 폭파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유족들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상

서울 <PD수첩>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각종 부조리를 집중 조명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나눔의 집의 자산을 불리는 데 전용되는 실태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장호기 조합원_ 서울/시사고양

수상소감 조계종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할머니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제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보자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무엇보다 여섯 분의 할머니들이 1분 1초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험한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나눔의 집 직원 분들에게 이번 방송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이슈 옥타곤> 장애인의 날 특집 '처음 만나는 자유'



▷ 이른바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장수번영복지원의 인권침해 사태를 최초로 보도한데 이어, 그 후 1년 뒤를 추적했다. 지역 내 문제를 고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황일묵 조합원_ 전주/편제
 유장욱 조합원_ 전주/편제

수상소감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또 전북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위가 적발돼 시설이 폐쇄되면 이들은 또 다른 시설로 갑니다. 시설을 따라 돌고 도는 것입니다. 시설 내 학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탈시설'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준비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몇몇 장애인들의 시도를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결국은 가야 길일 것입니다.